

# 현안과 과제

■ 2016년 하반기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

# 목 차

---

## ■ 2016년 하반기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하반기 국내외 5대 주요 경제 이슈 .....	2
3. 시사점 .....	8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주   원   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동 향 분 석 팀   :   홍 준 표 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외 4인

## *Executive Summary*

### □ 2016년 하반기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

#### ■ 개 요

최근 국내 경제는 저성장-저물가가 장기화되면서 회복의 모멘텀이 취약한 상황이며 향후 경기의 방향성도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하반기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 그 내용과 방향성을 예측해 보았다.

#### ■ 하반기 국내외 5대 주요 경제 이슈

**하반기 5대 주요 경제 이슈로는 첫째, (미국 경제의 회복력 약화) 하반기 미국 경기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미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한 차례에 그칠 전망이다.** 미국의 민간소비는 개선세가 지속되나 투자 및 수출 부진 등의 요인으로 하반기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며 성장 경로도 예상보다 하향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용 여건의 개선세는 최근 수준을 유지하고 물가는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역시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 축소) 중국경제는 “완만한 L자형 성장”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불안 요인이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3년 7.7%에서 2016년 1/4분기에는 6.7%로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그 하락세가 축소되는 “완만한 L자형 성장패턴”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경제성장률의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생산, 부동산 등 내수부문은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등 향후 경기가 소폭 개선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셋째, (관리 가능한 가계 부채 문제) 가계 부채는 증가세가 지속중이나 가계 재무상태의 안정성, 가계 부채 질적구조 개선 등의 모습을 볼 때 당분간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최근 국내 가계 부채는 저금리 지속, 분양 시장 호조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경제 내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만을 놓고 본다면 고정금리 및 원금분할상환 비중 증가, 안정적인 가계 재무상태 등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2017년 이후에는 주택공급과잉 문제,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요인들로 가계부채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산업구조조정의 충격파) 산업구조조정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편더멘틀 강화**

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2016년 하반기중)는 경기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산업구조조정은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부실을 차단하여 시스템 리스크 전이 방지 효과와 외국인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에는 다수 실업자 발생, 지역경제 침체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수출의 반등 기회 도래) 국제 유가 상승세 전환, 세계 수출물량 침체 완화 등 대외 여건에 긍정적 신호가 관측되고 있어 하반기 수출의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인 수출물가 하락세가 멈춘 가운데, 국제 유가가 상승 추세로 반전하면서 향후 수출물가 하락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세계 수출물량 감소율도 개선되면서 물량 측면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2016년 하반기 5대 주요 경제 이슈>

경제 이슈	내 용
① 미국 경제의 회복력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반기 미국 경기 미약한 회복세</li> <li>▪ 국내 수출 경기에는 부정적</li> </ul>
②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만한 L자형 성장 / 일부 내수 지표 반등 신호</li> <li>▪ 국내 수출 경기 회복에는 긍정적</li> </ul>
③ 관리 가능한 가계 부채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계 부채는 증가세 지속 / 관리 가능한 수준</li> <li>▪ 하반기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li> </ul>
④ 산업구조조정의 충격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적으로 고용시장 및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li> <li>▪ 중장기적으로는 경제편더멘탈 강화 기대</li> </ul>
⑤ 수출의 반등 기회 도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유가 상승, 세계 수출물량 감소율 개선</li> <li>▪ 국내 수출 경기에는 긍정적 신호</li> </ul>

■ 시사점

경기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긍정적인 시그널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국 경제 성장세의 약화로 인한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 지속에 대한 상시적 리스크 방어뿐 아니라, 향후 내수시장 확대를 겨냥한 기회 활용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 억제를 위한 미시적 대응 정책의 확대 적용 및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대내외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이 필요하며, 사후적 구조조정에 앞서 사전적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선제적 및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회복, 세계 교역량 증가율 개선 등 수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수출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1. 개요

○ 최근 국내 경제는 저성장-저물가가 장기화되면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취약한 상황이며 향후 경기의 방향성도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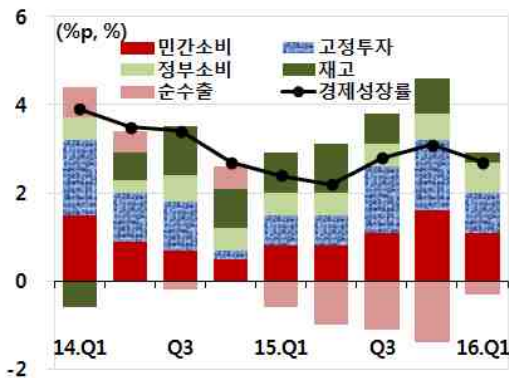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은 순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와 민간소비의 기여도 하락으로 둔화

-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015년 3분기 1.2%에서 4분기에 0.7%, 2016년 1분기 0.5%를 기록
-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015년 4분기에 3.1%에서 2016년 1분기 2.8%로 하락

-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등 공급측 물가가 마이너스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1%를 하회하며 준(準, quasi) 디플레이션<sup>1)</sup> 국면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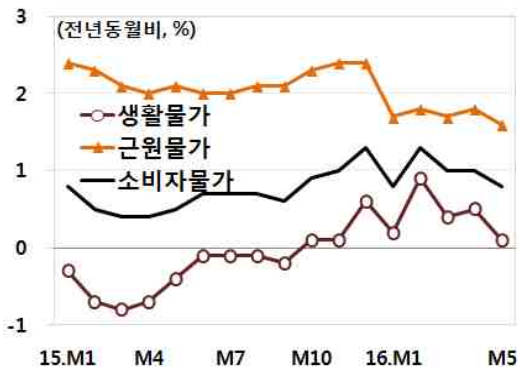
-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8%로 4월의 1%보다 하락
  - ※ 소비자물가상승률(YoY): 1월 0.8%, 2월 1.3%, 3월 1.0%, 4월 1.0%, 5월 0.8%
-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sup>2)</sup>) 상승률은 4월 1.8%에서 1.6%로 하락하였으며, 생활물가<sup>3)</sup> 상승률도 같은 기간 0.5%에서 0.1%로 하락

<수요 부문별 경제성장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 통계청.

- 1) 디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국면으로 정의되나, 준디플레이션은 정립된 정의가 없음. 다만 이 용어를 사용했던 문헌들의 문맥상 의미를 보면 생산자물가 등 공급 물가가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낮은 플러스 수준(0%대)을 보이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 2) 소비자물가 품목중 계절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곡물 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을 제외한 429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 3) 소비자물가 품목중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2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소비자물가지수 품목수는 481개).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하반기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5가지 경제 이슈에 대해 그 내용과 방향성을 예측해 봄

- 대외 경제 이슈로는 「미국 경제의 회복력 약화」,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 축소」의 G2 경제 상황을 선정

- 미국 경제의 방향성을 보는 이유는 세계 주요 경제권중 유일하게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 판단되기 때문
- 중국 경제는 우리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방향성이 국내 수출 경기 회복의 강도를 결정지을 것으로 생각

- 국내 경제 이슈로는 「관리 가능한 가계 부채 문제」, 「산업구조조정의 충격파」, 「수출의 반등 기회 도래」 등의 3가지 이슈를 선정

- 하반기중 국내 경기 회복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볼 필요가 존재
-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져 올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평가를 해보고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대략적으로 판단
- 여전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경기 회복의 단초는 수출 부문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평가

## 2. 하반기 국내외 5대 주요 경제 이슈

### (1) 대외 경제 이슈

○ (미국 경제의 회복력 약화) 하반기 미국 경기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한 차례에 그칠 전망

- 미국의 민간소비는 개선세가 지속되나 투자 및 수출 부진 등의 요인으로 하반기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며 성장 경로도 예상보다 하향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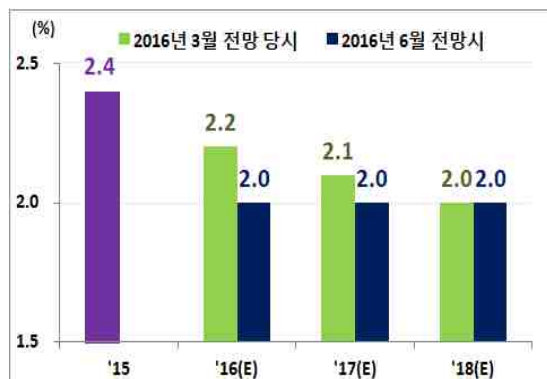
- 주택가격 상승세 유지 및 가계 자산 증가 등으로 소비 개선세 유지 전망

- 대외 경기 부진으로 인한 수출 부진 지속, 이로 인한 투자 역시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4)
- 이에 따라 미연준의 2016년 및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

- 고용 여건의 개선세는 최근 수준을 유지하고 물가는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역시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실업률, 비농업취업자수 등의 양적인 지표와 시간당 임금 등의 질적인 지표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 지표인 '노동시장여건지수'는 5개월 연속 하락
- 자연실업률(4.5~5.0%)에 근접한 실업률을 고려하면(2016년 5월 4.7%) 향후 고용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다소 무리
- 최근 물가상승률은 혼조 속에서도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나, 임금상승률이 전년보다 확대되는 추세5)로 향후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임을 시사

<미국 연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자료 : 미국 연준.  
주 : 2015년은 실적치. 이후는 전망치.

<미국 고용 여건 및 물가>



자료 : 미국 연준, 미국 상무부.  
주 : 미국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2.0%.

○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 축소) 최근 중국경제는 “완만한 L자형 성장”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불안 요인이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점증

- 최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나 그 하락폭에 하방 경직성이 관찰

- 중국 GDP 증가율은 2013년 7.7%에서 2016년 1/4분기에는 6.7%로 둔화하

4) 수출 증가율(전년비)은 2015년 3분기 -8.1%, 4분기 -10.4%, 2016년 1분기 -8.0%로 침체 지속. 설비투자 증가율(전기비 연율)은 2015년 3분기 9.9%, 4분기 -2.1%, 2016년 1분기 -9.0%로 역시 침체 지속.  
5) 시간당 임금 상승률(% , 전년비) : 2015년 1분기 2.1% → 2분기 2.2% → 3분기 2.3% → 4분기 2.5% → 2016년 1분기 2.4% → 4~5월 2.5% (자료 : 미국 노동부).

면서 “완만한 L자형 성장패턴”을 시현

- 특히, 대외수요 부족 등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은 2015년 2/4분기부터 4분기 연속 둔화

- 또한, 산업생산, 부동산 등 내수부문은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등 향후 소폭 개선 가능성도 상존

-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등 내수부문은 약 10%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고, 제조업 생산이나 제조업 PMI도 2015년 4/4분기 이후 회복 추세
- 부동산 경기 역시 2015년 하반기 부터 중대형 도시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 되면서 지난해 말 줄어들었던 중장기 신규대출이 올해 1/4분기에 들어 46.6% 증가

< 중국 경제의 주요 지표 변화 추이 >

(단위 : 증가율,%)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Q	2Q	3Q	4Q	연간	1Q	4월	5월
GDP	7.7	7.3	7.0	7.0	6.9	6.8	6.9	6.7	-	-
수출	7.8	6.0	4.6	-2.2	-5.9	-5.2	-2.9	-9.7	-2.0	-4.7
소매판매	13.1	12.0	10.6	10.4	10.5	10.7	10.7	10.3	10.3	10.2
고정자산투자	19.6	15.7	13.5	11.4	10.3	10.0	10.0	10.7	10.5	9.6
건설투자	23.0	18.1	15.1	13.2	11.7	11.3	11.3	11.7	11.8	11.0
제조업 생산	10.7	8.9	6.7	7.7	6.7	7.0	7.0	7.2	6.9	7.2
관방 PMI	51.0	50.1	50.1	50.2	49.8	49.7	49.7	50.2	50.1	50.1
부동산가격	11.5	-2.7	-4.4	-2.7	1.4	4.2	4.2	7.4	9.0	10.3
신규 중장기대출	59.9	32.0	23.7	11.9	13.0	8.7	8.7	46.6	36.9	39.5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해관총서, 중국지수연구원, 중국인민은행.

주 1) 수출, PMI지수, 부동산가격 증가율은 분기별, 월별 말일 기준임.

2)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산업생산 증가율은 분기별, 월별 누적 기준임.

(2) 국내 경제 이슈

○ (관리 가능한 가계 부채 문제) 가계 부채는 증가세가 지속중이나 안정적인 가계 재무상태, 가계 부채 질적구조 개선 지속 등의 모습을 볼 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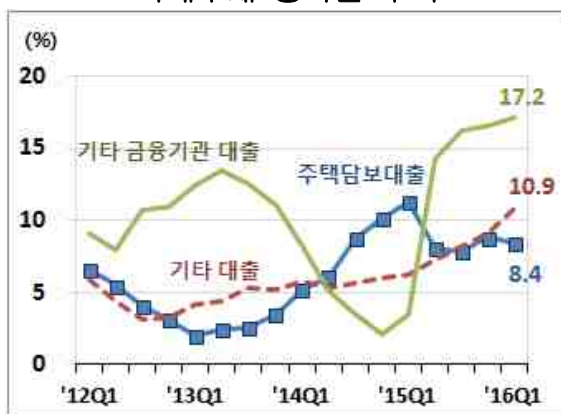
- 최근 국내 가계 부채는 저금리 지속, 분양 시장 호조 등으로 증가세 확대

- 2016년 1분기말 가계 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 규모는 1,223.7조원으로 전년동분기 1,098.3조원 대비 11.4% 증가



-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분양시장 호조로 2016년 1분기 전년동분기 대비 8.4%, 기타 대출(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은 10.9% 증가<sup>6)</sup>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 저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제2금융권 대출 수요가 확대되며 기타 금융기관 대출은 2016년 1분기 17.2% 증가
- 그러나 2016년 하반기중에는 고정금리 및 원금분할상환 비중 증가, 안정적인 가계 재무상태 등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
- 정부의 가계부채 질적 개선 노력 지속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016년 3월말 36.8%, 원금분할상환 비중은 39.5%로 크게 확대
  -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부채 가구 기준 2015년 66.9%로 가계의 재무상태는 안정적 수준으로 평가<sup>7)</sup>
  - 다만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은행권에만 적용됨에 따라 비은행권 및 제2 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확대될 우려도 존재<sup>8)</sup>
- 다만 올해 하반기의 현안은 아니지만 2017년 이후에는 주택공급과잉 문제, 국내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요인들로 가계부채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주 1)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은 예금취급기관 기준.  
2) 기타 금융기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의 합.

<원금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 주 1)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비 비중.  
2) 2016년은 3월말 기준.  
3) 2017년은 연말 기준 목표치.

6)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2016년 1분기말 기준 509.3조원, 기타 대출(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은 316.2조원, 기타 금융기관 대출(주택담보대출+기타대출)은 333.0조원.  
7) IMF는 가계의 순금융자산대비 부채비율이 80% 수준으로 가계의 재정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IMF의 한국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평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6.5.4.).  
8) 단, 보험업계에 대해서는 7월부터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이 적용될 예정.

○ (산업구조조정 충격파) 산업구조조정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편더멘틀 강화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2016년 하반기중)는 경기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산업 구조조정은 추가 부실을 차단하여 시스템 리스크 전이 방지 효과와 외국인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

· 최근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기업) 비중이 2009년 8.8%에서 2015년 13.2%로 증가하면서 기업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 기대

- 그러나 2016년 하반기만을 놓고 본다면 단기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은 다수 실업자 발생, 지역경제 침체 등 단기적으로 실물경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산업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5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7만 3,582명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11.0% 증가

· 특히, 조선업종 구조조정으로 5월 경남지역 실업자 수는 6만 5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1.0%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클 것으로 예상

<제조업 부문 한계기업 추이>



자료 : Bloomberg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 제조업 1,254개 기업 대상, 매년 재무분석이 가능한 기업으로만 비중 계산.

<구직급여신청자 수 및 증가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 (수출의 반등 기회 도래) 국제 유가 상승세 전환, 세계 수출물량 감소율 개선 등 대외 여건에 긍정적 신호가 관측되고 있어 하반기 수출의 반등 가능성을 높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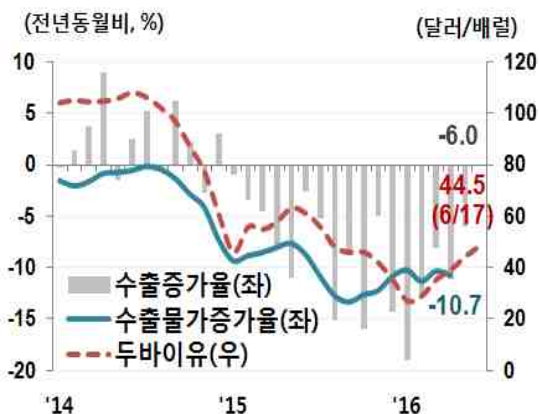
-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인 수출물가 하락세가 멈춘 가운데, 국제 유가가 상승 추세로 반전하면서 향후 수출물가 하락폭이 줄어들 전망

- 국제유가가 3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6월 들어 50달러 선에 접근
  - ※ 두바이유 가격(달러/배럴) : 1월 26.9 → 2월 28.9 → 3월 35.2 → 4월 39.0 → 5월 44.3 → 6월 17일 44.5
- 국제 유가 상승세로 최근 수출물가 하락세가 멈추고 -10% 수준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으며, 향후 유가 상승이 수출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 수출 물가 하락폭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

- 또한 세계 수출물량 감소율도 개선되면서 물량 측면에서도 긍정적 신호 포착

- 네덜란드경제정책분석국(CPB)의 세계무역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세계 수출물량증가율은 2015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며 2016년에는 감소율을 기록
- 그러나 세계 수출물량 감소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 2분기 이후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관측

<한국 수출물가증가율과 국제유가>



자료 :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세계 수출물량 증가율>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네덜란드 경제정책 분석국 자료이용).  
주 : 계절조정, 3개월 이동평균, 전월비기준.

### 3. 시사점

- 국내외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비하고 일부 긍정적인 시그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구축해야 할 것임

첫째, 최근까지 나 홀로 성장세를 보였던 미국 경제 성장세의 약화로 인한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 유일한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는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을 의미하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의 장기 불황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
- 한편, 하반기중 미국의 금리 정상화 차원에서 시행되는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바,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 점검,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노력이 요구

둘째,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 지속에 대한 상시적 리스크 방어뿐 아니라, 향후 내수시장 확대를 겨냥한 기회 활용도 모색해야 한다.

-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중국 증시 및 환율 변동성 지속, 기업 부채발 금융리스크 확대 등 실물 및 금융 리스크에 대비
- 특히, 석유화학, IT, 철강 등 對중국 수출 감소로 타격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한 단기적 처방보다는 對중국 수출구조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중장기 방안을 마련
- 한편, 중국 내수 시장 확대에 대비해 맞춤형 對중국 소비재 및 서비스 수출 분야 발굴도 시급
-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 참여뿐 아니라, 관련 사업에서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사업 플랜도 강구

셋째,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 억제를 위한 미시적 대응 정책의 확대 적용 및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중인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비은행권, 제2금융권 및 신용대출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 또한 고정금리 및 원금분할상환 유도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
  - 안심전환대출 기준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가계의 원금분할상환을 적극 유도
- 근본적으로는 가계가 상환 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하면서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
- 한편 저소득 서민 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가계 대출 증가 및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들 계층에 대한 생활비 지원 강화와 더불어 일자리 대책을 강화해야 함고, 필요시 생활자금 지원 확대

넷째, 대내외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이 필요하며, 사후적 구조조정에 앞서 사전적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선제적 및 상시적 구조 조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협력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신속한 재취업 지원 등의 대책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
- 기업 현황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채권금융기관 내부 및 외부 시장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시 신용 위험평가 등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잠재 부실요인을 조기에 파악

다섯째, 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회복, 세계 교역량 증가율 개선 등 수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수출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미국·중국·EU 등 기존 주력 시장에 대해 FTA 활용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이란, 인도, 베트남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 시장에 대해 개별 진출 전략을 구축
- 지속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을 확충하고 기술 혁신 및 신제품 개발 등 장기적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HRI**

참여 연구진

<b>【연구 조정】</b>	홍준표 동향분석팀장/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b>【미국 경제】</b>	
<b>【중국 경제】</b>	한재진 중국경제팀장/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
<b>【가계 부채】</b>	조규림 선임연구원 (2072-6240, jogyurim@hri.co.kr)
<b>【산업구조조정】</b>	정 민 연구위원 (2072-6220, chungm@hri.co.kr)
<b>【수출 경기】</b>	백다미 선임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